

『알렉시아드』 중역 과정의 행위자-네트워크 분석: 중역의 한계 보완을 중심으로*

김현웅(한국의국어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중역¹⁾은 문화적·언어적으로 먼 언어를 옮길 번역가를 확보하기 어려운 때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 왔다(Pięta, 2019). 그러나 매개본의 번역 오류가 최종 번역문에 누적되거나(Hadley, 2017), 고유명사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등(Ivaska & Paloposki, 2018) 원문과의 거리가 확대된다는 문제도 함께 중역의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이유로 투리(Toury, 1995, p. 133)는 번역에서 원문 충실성이 점차 중시됨에 따라, 중역의 사용도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전망과는 달리, 오늘날에도 중역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세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Marín-Lacarta, 2018). 이처럼 번역 실무에서 중역은 불가피한 것인 만큼, 이런 필수불가결한 중역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신 히스토리퀵 출판사의 김연수 대표님과 장인식 번역가님, 그리고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고려대 이영훈 교수님과 한국외대 성승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중역(indirect translation)이란 원문이 아닌, 매개본을 통해 이루어지는 번역, 즉 ‘번역의 번역’(Gambier, 1994, p. 413)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중역 연구는 주로 텍스트 분석 및 번역 품질 분석에만 집중되어 왔으며(Pięta et al., 2023), 중역의 한계 보완을, 특히 프로세스 차원에서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는 중역 연구가 가진 방법론적 어려움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역은 원문을 충실히 재현하지 못한 번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번역가나 관련 실무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Davier et al., 2023, p. 833). 그 결과, 실제 번역 현장에서 중역의 한계 보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루는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게 되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발표된 메타분석에 따르면, 전체 중역 연구 106편 중 과정 중심(process-oriented) 연구는 단 4편에 불과하다(Pięta et al., 2023).

이에 본고는 안나 콤니니(Anna Komnene)의 비잔티움 제국사 『알렉시아스』²⁾의 중역 사례(중세 그리스어→영어→한국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중역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인 김연수와 참여 번역가 중 한 명인 장인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던 ‘중역의 한계 보완’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행위자들을 포섭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여 중역의 한계를 보완해나갔는지 분석하려 한다. 이를 토대로, 본 프로젝트에서 중역의 한계 보완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해 실무 영역에서 이루어진 중역의 한계 보완 과정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실무적 측면 및 분석틀 활용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2) 원문의 서명은 ‘알렉시아스’(Alexis)이며, 영어 번역서의 서명은 이를 라틴어화한 ‘알렉시아드’(The Alexiad)이다. 따라서 원문을 가리킬 때는 ‘알렉시아스’를, 영어 매개본을 가리킬 때는 ‘알렉시아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알맞다. 한편, 영역본을 매개로 중역된 본 한국어 번역서의 서명이 『알렉시아드』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2. 이론적 배경

2.1 중역의 한계와 보완

중역은 성경 번역에서도 사용되었을 만큼 역사가 깊지만, 정작 번역학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Pięta, 2017, p. 200). 오늘날 중역은 문학번역(성승은, 2020; 안수경, 2021)은 물론 시창각번역(남윤지, 2019; 성승은 등, 2022), 뉴스번역(Davier, 2022; Valdeón, 2022), 게임번역(O'Hagan, 2022; Zhang & Song, 2023), 나아가 생성형 AI 번역(Jiao et al., 2023; Shi, 2025)³⁾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실무 관행이 되었다. 세계화와 함께 문화 간 교류가 확대되고, 지리적·문화적으로 먼 언어 간 번역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역의 활용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Marín-Lacarta, 2018).

중역이 쓰이는 이유는 다양하다. 번역 비용 절감, 번역 시간 단축, 원문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 번역사의 원천언어 역량 부족, 중역을 통한 검열, 특정 매개언어에 대한 선호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원문과의 지리적·문화적·언어적 거리가 커 직접번역이 가능한 번역가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가장 빈번히 사용된다(Pięta, 2019, pp. 27-28). 이 경우 중역은 실무적 제약 속에서 불가피하게 선택되는 일종의 타협의 결과로 이해된다.

중역은 여러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지만, 어디까지나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매개본에 포함된 오역이 최종 번역문으로 전달되는 ‘연쇄 효과’(concatenation effect)가 발생하거나(Hadley, 2017, 2021), 원문의 고유명사가 매개본을 거치며 왜곡되고(Andraka & Milković, 2024; Ivaska & Paloposki, 2018), 문화적 요소가 변이되거나(Jin et al., 2022; Park et al., 2015), 경어법 및 화용맥락이 소실되는 등(성승은 등, 2022)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번역 과정이 늘어날수록, 원문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도 커지기 마련이다.⁴⁾ “번역이 원문의 파생이라서

3) LLM 기반 기계번역에서 프롬프트 설계를 통해 중역의 프로세스를 구현한다.

4) 반례도 있다. Hekkanen(2014)은 중역에서 취합번역 전략을 사용할 경우, 최종 번역본이 매개본보다도 오히려 원문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취합

나쁜 것이라면, 중역은 더더욱 나쁘다”(Assis Rosa et al., 2017, p. 114)는 말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중역의 구조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전략 역시 꾸준히 모색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는 취합번역(compilative translation)과 협업번역(collaborative translation)이 있다(Ivaska & Paloposki, 2018). 전자는 원문 또는 둘 이상의 매개본을 함께 참조하는 방식을, 후자는 원천언어를 구사하는 협력자와 공동 작업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들 전략은 매개본의 오역 전이를 예방하고, 고유명사를 더 적절하게 옮기는 등 중역의 필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Ivaska & Paloposki, 2018).

이렇듯 중역은 실무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번역 방식이지만, 동시에 구조적 한계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중역 자체의 퇴출을 논하기보다는, 중역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연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역의 한계 보완을 비롯한 중역 연구는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중역이 원문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독자들 사이에 자리 잡자, 출판사가 중역 사실을 서지 사항에서 숨기거나, 중역 텍스트를 직접번역으로 위장시키는 등의 실무적 악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구자가 텍스트의 중역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Alvstad, 2017; Marín-Lacarta, 2018). 나아가 연구 결과의 부정적 파장을 우려한 번역가 및 관계자가 연구 협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Davier et al., 2023, p. 833). 이는 중역 연구 전반을 위축시킨 동시에, 실무 중심 중역 연구의 가장 큰 방법론적 제약이 되었다. 그 결과 중역 연구는 대부분 텍스트 분석을 통한 최종 번역문의 품질 평가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여왔으며(Assis Rosa et al., 2017, p. 123), 중역의 실무 과정을 분석하거나 중역의 한계 보완 방법을 다루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다.

이처럼 중역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실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뚜렷하다. 이로 인해 형성된 중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러 방법론적 어려움을 초래했고, 그 결과 중역의 한계 보완을 실무 맥락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 본고

는 실무 맥락에서 이루어진 중역의 한계 보완 과정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에 『알렉시아드』 한국어 중역 과정을 분석하고, 중역의 한계 보완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2.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번역학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은 1980년대 초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발전한 사회이론으로,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 미셸 칼롱(Michel Callon), 존 로(John Law)의 연구를 거치며 정립되었다. 이들은 과학적 사실과 사회, 나아가 세상 자체가 여러 자연적, 사회적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된 복합적 산물이라고 말한다. 가령 ‘전기차 도입 프로젝트’는, 전기차를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납 축전지와 연료 전지와 같은 자연적(물질적) 요소뿐 아니라, 전기차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정부 부처나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구입을 결정할 소비자와 같은 사회적 요소가 함께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Callon, 1986). 이러한 전제하에,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추적, 세상의 구성 방식을 경험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제시된 분석틀이 바로 ANT다.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즉 행위능력(agency)을 가진 실체는 모두 행위자로 구분된다(김환석, 2005, p. 142). 여기에는 ‘인간 행위자’는 물론 동식물, 사물, 기술, 제도, 관습 등 인간 외 유·무형의 실체를 아우르는 ‘비인간 행위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특히 ANT에서는 비인간 행위자 역시 행위능력을 가진 주체로 간주하며, 이 점에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는 동등하게 취급된다(홍성욱, 2010, p. 22).

ANT의 관점에서 세상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맺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로 이해된다. 네트워크는 어느 행위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행위자를 모집하고 뜻을 같이하고자 할 때 형성되는데, 이러한 동맹 결성의 과정과 책략을 ‘트랜슬레이션’(translation)⁵⁾이라 부른다. 즉 트랜슬

5) 번역학의 *translation*이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풀이해 동등한 의미를 가진 두 언어 표현을 만드는 과정이듯, ANT의 *translation* 역시 한 행위자의 의도를 다른 행위자의 이해관계에 맞게 치환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이다(홍성욱, 2010, p. 25). 이렇듯 ANT의 은유는 번역학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지만, 서로 다른 이론에서 발

레이션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문제 제기자의 이해관계로 치환(displacement), 이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결속시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Callon et al., 1986, p. 105).⁶⁾ 트랜슬레이션의 성패는 네트워크에 필요한 행위자들을 정의하고, 성공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핵심 행위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Callon, 1986, p. 26). 이때 핵심 행위자란 트랜슬레이션을 주도하는, 사실상 네트워크 형성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중심 주체를 뜻한다.

칼롱(Callon, 1984)은 트랜슬레이션을 문제제기(problematization), 관심끌기(interressement), 등록하기(enrollment), 동원하기(mobilization)와 같이 네 단계로 구분해 설명한다.

- 문제제기: 문제 제기자에 의해 해결할 문제가 설정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에 편입시킬 행위자들의 정체성과 역할이 잠정 정의된다. 이 과정에서 ‘의무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 OPP)이라는 위치가 지정되는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은 반드시 이 지점을 통과해야만 한다.
- 관심끌기: 행위자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편입시키기 위한 설득이 이루어진다. 이때 물질적 보상은 물론 설득, 회유, 공감, 협박 등 무엇이든 설득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데(김상배, 2011, p. 13), 이를 관심끌기 장치(interressement device)라고 한다(Callon, 1984). 이 단계는 결국 동원하고자 하는 행위자에게 다른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경쟁적 네트워크와의 결함을 차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등록하기: 편입된 행위자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조정 및 구체화하기 위한

전하며 그 실질적 의미는 달라지게 되었다. 국내 ANT 연구에서는 대체로 ANT의 *translation*을 ‘번역’으로 옮기고 있는 한편, ANT를 접목한 번역학 연구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연구자마다 다양한 표기법을 활용해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ANT의 *translation*을 ‘트랜슬레이션’으로 음차하여 표기하였는데, 이는 의미적 등가를 이루지 않는 두 개념에 대한 형태적 동일성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다.

- 6) 라투르(Latour, 2016, pp. 216-242)의 제3장 하위절 부제들은 이해관계의 트랜슬레이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한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당신도 해 주면 안 되겠는가?”, “만일 당신이 약간만 우회해 준다면...”, “이해관계와 목표를 뒤섞기”, “불가결한 것 되기”.
- 7) 행위자의 능력, 본질 등의 자질을 말한다(김환석, 2006, p. 71).

협상이 수반된다. 등록하기의 성사는 앞선 관심끌기 단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다(Callon, 1984, pp. 65-66). 행위자들이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등록은 완료되며, 네트워크는 공고화된다.

- 동원하기: 소수의 대변인(spokesperson)이 행위자들의 행동을 취합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이를 문제제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외부에 제시하며 행위자들의 행동을 대변한다. 이때 행위자들의 행동이 대변과 일치할 경우, 네트워크는 성공한 것으로 여겨진다(김상배, 2011, pp. 13-14). 그러나 행위자들이 반역(treason)을 하여 그들의 행동이 대변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다면, 대변인은 대표성을 잃고 네트워크는 실패한 것이 된다.

위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네트워크가 안정화되면, 네트워크 자체가 하나의 행위자로 축약되는 결절화(punctualization)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이나 복잡한 내부 구성은 감추어지고, 외부에서는 오직 그 입출력만을 통해 네트워크를 수용하게 되는데(홍성욱, 2010, pp. 23-24), 이러한 상태의 네트워크를 ‘블랙박스’라고 한다. 그러나 만약 결절화된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닫혀 있던 블랙박스는 다시 열려 이들의 동맹과 각 행위자의 실체는 의심에 놓이게 된다(Callon, 1986, p. 30).

오늘날 ANT는 본래의 출발점인 과학기술학을 넘어 철학, 사회학, 조직이론 등 더욱 광범위한 학문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홍성욱, 2010, p. 17).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번역학에서도 부젤랭(Buzelin, 2005, 2006)의 연구를 계기로 ANT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번역의 생산 과정에 개입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주목받고 있다.

ANT를 적용한 국내 번역학 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번역사회학과 접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점차 축적되고 있다. 최수연(2016a, 2016b)은 국내 번역학 연구 가운데 최초로 ANT를 도입, 더빙번역과 자막번역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역할과 관계를 규명하고(2016a), 영상번역에서 클라이언트가 번역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2016b) 번역학 연구의 사회학적 지평을 확장하였다. 이상빈(2016)은 게임번역기, 팬번역가, 로컬라이저로 구성된 게임번역기 ‘MORT’의 네트워크를 분석해 미래의 게임 로컬라이제이

선 분야에서 번역기계가 놓이게 될 위치에 대해 논하였다. 마찬가지로 곽은주와 김동미(2022) 역시 기계번역 분야에 ANT의 개념을 차용, 기계번역을 하나의 행위자로 간주하고 앞으로의 기계번역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였다. 문학번역에 초점을 맞춘 최은경(2022, 2025a, 2025b)은 번역 지원금 신청, 공동번역(2022), 한국문학의 해외 수출(2022, 2025b), 재번역(2025a) 등의 상황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분석, 문학번역은 번역가뿐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협력과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산물임을 보여주었다.⁸⁾

이처럼 ANT를 적용한 번역학 연구가 여러 하위 분야에 걸쳐 축적되고 있는 가운데,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탐구되지 않았던 중역 분야에 이 이론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알렉시아드』 번역서라는 블랙박스를 다시 열고, 중역의 한계 보완 과정에 기여한 여러 행위자들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추적할 예정이다.

3.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특정 사례를 심층 분석한 후, 그 결과를 ANT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사례연구는 어느 현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으로(Creswell, 2012), 특정 사례를 ANT의 시각에서 재구성해 트랜슬레이션의 과정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분석 대상으로는 출판사 ‘히스토리퀸’에서 주도한 『알렉시아드』 중역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⁹⁾ 히스토리퀸은 소외된 역사와 인물을 조명한다는 비전 아래, 여성 중심 서사의 역사 콘텐츠 번역·편집을 전문으로 해온 독립출판사이다. 출판사의 대표이자 번역가인 김연수는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원서를 발굴해,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를 독자에게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는 것을 출판사의 핵심 목표로 한다”고 밝힌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6. 2. 11.).

8) 이상이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국내 번역학-ANT 연구의 전부다.

9) Kommene, A. (2024). 알렉시아드 (장인식, 여지현, 유동수, 김연수, 공역). 히스토리퀸. (Original work published n.d.)

『알렉시아스』는 비잔티움 제국 콤니노스 왕조의 공주이자, 황제 알렉시오스 1세의 장녀인 안나 콤니니(1083~1151)가 아버지의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이다. 제국의 번영을 이끈 아버지의 업적을 후대의 비잔티움인들이 기억해주시기를 바라며, 안나 콤니니는 제국 내부의 권력 다툼과 군사적 충돌, 제1차 십자군 전쟁 등 중세 유럽의 주요 사건들을 15권에 걸쳐 담아내었다(양희민, 2025).

『알렉시아드』 중역 프로젝트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김연수였으며, 번역에는 장인식, 여지현, 유동수, 김연수가 참여하였다. 중세 그리스어 원문을 직접번역할 수 있는 번역가를 확보하기 어려웠기에, 본 프로젝트는 ‘도스(Dawes) 영역본’¹⁰⁾을 매개로 한 중역을 선택하였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5. 12. 5.). 다만 중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김연수는 원문과 ‘슈터(Sewter) 영역본’¹¹⁾을 함께 참고하는 취합번역 전략을 채택하였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5. 12. 5.).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중역의 한계 보완 과정을 분석한다는 본고의 분석 목표에 알맞다.

자료 수집을 위해 김연수와 장인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라투르(Latour, 2005)가 강조하듯, 인터뷰는 네트워크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다. 김연수는 프로젝트 기획과 참여자 모집, 주요 의사결정 등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한 인물로, 따라서 그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장인식은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번역을 담당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중세 그리스어 독해 역량을 바탕으로 원문-매개본의 교차검증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는 프로젝트에 기여한 비중이 커,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인물로 보았다.

인터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인터뷰는 김연수만을 대상

10) Komnene, A. (1928). *The Alexiad* (E. A. S. Dawes, Trans.). Routledge. (Original work published n.d.)

11) Komnene, A. (2009). *The Alexiad* (E. R. A. Sewter, Trans.). Penguin Classics. (Original work published n.d.)

으로 실시하였으며(2025년 12월 5일),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서면 및 구조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지 구성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한국어 번역서의 역자 서문과 같은 페리텍스트를 검토하는 한편, 출판사가 공개한 인터넷 자료 등 에피텍스트도 함께 참고하며 관련 정보를 정리하였다. 특히 본 사례의 경우, 출판사의 에피텍스트에서 번역서의 중역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었을 뿐 아니라, 중역에 사용된 구체적인 매개본(도스 영역본)의 종류와 특징,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 정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이 용이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질문지 구성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김연수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필자는 프로젝트에 동원된 인원들의 구성과 역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배경과 근거 등을 질문하였으며,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했던 사실관계를 검증하거나 자료조사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 보충 설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질문지는 인터뷰 대상자의 응답을 돕기 위해 질문별로 최소 셋 이상의 응답 예시를 함께 제시하였다. 다만 개방형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예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응답을 서술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김연수는 제시된 예시에 없는 내용으로 응답하기도 하였다. 김연수의 응답을 종합하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2차 인터뷰는 김연수(2026년 2월 11일)와 장인식 번역가(2026년 2월 12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때는 논지 보강 및 사실관계 재확인을 위해 논문 초안과 질문지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면 및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일부 서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도 한 한편, 특정 대목에 대해서는 반박하며 보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후 응답의 타당성 확보 및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해 두 사람에게 논문 완성본을 전달, 사실관계와 기술 방향을 재차 검토하도록 하였다.

사례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한 분석 결과는 ANT, 특히 칼롱(Callon, 1984)이 제시한 단계론을 통해 다음 장에서 분석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ANT는 특정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므로(Callon, 1984), 『알렉시아드』 중역 프로젝트라는 네

트위크 속에서 중역의 한계 보완 과정에 참여한 번역가, 텍스트, 프로젝트 매니저 등 여러 행위자들의 역할을 탐구한다는 본고의 목표에 부합한다. 특히 칼롱의 단계론은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네 가지 핵심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ANT 연구는 물론(김상배, 2011; 김연희, 2017) ANT를 적용한 국내외 번역학 연구(최은경, 2022, 2025a, 2025b; Mileto, 2025; Wongseree, 2021)에서도 널리 활용되어 왔다.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알렉시아드』 중역 과정을 트랜슬레이션의 네 단계(Callon, 1984)로 구분해 분석한다.

4.1 문제제기: 무엇이 문제이며, 누가 필요한가?

문제제기 단계에서는 문제 제기자가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에 끌어들일 다른 행위자의 정체성과 역할을 정의한다. 이 과정에서 의무통과점이 확립되는데, 네트워크에 동원될 행위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실현을 위해 이 지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본 사례는 『알렉시아스』의 한국어 번역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비록 국내 출판시장에서 중세 유럽사가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편은 아니지만,¹²⁾ 해당 장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소규모 독자층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견고한 독자 기반이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알렉시아스』의 한국어 번역서 또한 독자들에게 의해 꾸준히 요구되었다. 나아가 번역의 필요성은 단순히 독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알렉시아스』는 비잔티움 제국의 황녀였던 인물이 황제의 치적을 직접 기록한 역사서라는 점, 제1차 십자군 전쟁을 비잔티움의 관점에서 기술한 사료라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동시에, 안나 콤피니의 유려한

12) 다만 장인식 번역가는 『알렉시아스』가 “인지도가 적지 않다”고 평가한다(장인식, 사적 통신문, 2026. 2. 12.).

문체와 고풍스러운 어휘 사용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 또한 높게 평가된다(양희민, 2025). 이러한 배경에서 『알렉시아스』는 문화적, 학술적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번역이 요구되어 왔으며, 한국어 번역서의 출간은 중세 유럽사에 관심 있는 국내 독자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관련 연구와 담론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알렉시아스』가 그간 한국어로 번역되지 못한 데에는, 번역과 관련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첫째는 원문의 언어적 특수성이다. 이 중세 그리스어 저서를 직접번역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중세 그리스어 번역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 이러한 특수어 번역가가 극소수라는 사실은 본 저서의 번역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제약이 되어 왔다.

둘째는 직접번역의 대안인 중역이 지니는 한계 때문이다. 중역에서는 매개본의 오역이 최종 번역에 그대로 전해지거나(Hadley, 2017), 원문의 고유명사 표기가 매개본을 거치며 변이될 가능성이 있다(Ivaska & Paloposki, 2018). 특히 『알렉시아스』처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고, 소수의 견고한 독자층이 있는 텍스트라면, 번역의 품질은 프로젝트의 성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번역의 완성도가 전문 독자들에게 의해 엄격하게 검토 및 평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¹³⁾ 만약 출간된 번역서에 오역이나 고유명사 표기 오류 등이 만연하여 독서를 방해한다면, 원문의 작품성과 고증을 충실히 재현한 번역서를 기대했던 이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소수어 번역이라는 시나리오는 기존 출판사들의 번역 시도를 지속적으로 좌절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연수는 “알렉시아스는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뿐 아니라 중세 유럽사, 특히 십자군 원정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1차 사료이지만, 비잔티움사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각광받지 못해 그간 한국어 번역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5. 12. 5.), 역사적·학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번역서가 출간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한다. 이처럼 『알렉시아스』 번역서의 부재’를 문제로 제기한 그는 ‘중역의 한계를

13) 실제로 일부 독자들은 번역서를 검토한 뒤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김연수는 “수집된 피드백은 향후 (정식 출간용) 중쇄본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6. 2. 11.).

보완한 『알렉시아드』 중역 번역서 출간'을 그 해결책으로서 구체화한다. 그렇게 『알렉시아드』 번역은 히스토리퀸의 차기 프로젝트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소외된 역사와 인물을 조명한다는 히스토리퀸의 비전, 그리고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원서를 발굴해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를 소개하겠다는 김연수의 지향과도 일치했으므로, “번역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충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는 회고한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6. 2. 11.).

이 시점에서 김연수는 네트워크의 핵심 행위자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설계하고, 필요한 행위자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주도하게 된다. “중세 그리스어를 직접 번역하는 번역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한 그는 영어 매개본을 통한 중역을 선택하면서도, “도스의 영어본(매개본)에서 오역했을 가능성, 고유명사 표기 방법이 문제되리라고 예상”하였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5. 12. 5.). 이처럼 매개본 오역의 전이 가능성, 고유명사 표기의 변이 가능성을 미리 인지한 김연수는 취합번역 전략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원문과 복수의 매개본을 함께 참고하면 중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5. 12. 5.).

이후 그는 문제 해결에 동원할 행위자의 정체성과 역할을 정의한다. 특히 번역가의 경우, 원활한 취합번역을 위해서는 일부나마 중세 그리스어 독해 역량을 갖추어야 했으며, 나아가 중세 유럽사라는 텍스트의 장르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관련 배경지식도 함께 갖출 필요가 있었다고 김연수는 말한다.¹⁴⁾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정의된 행위자들의 정체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았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5. 12. 5., 2026. 2. 11.).

- **번역가:** 영어 매개본을 토대로 중역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영어 번역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취합번역을 위해서는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중세 그리스어를 독해할 수 있어 번역 중 원문 대조가 가능해야 한다. 또, 텍스트의 맥락을

14) 김연수는 “중세유럽, 특히 작중 배경인 11세기 비잔티움 제국에 관한 배경지식을 보유하고, 중세 그리스어를 어느 정도 구사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번역가를 모집”했다고 밝혔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5. 12. 5.).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비잔티움 제국 관련 역사적 지식도 함께 요구된다. 한편, 원문 대조로 인한 작업 부담과 번역 소요 시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 네 명의 번역가가 함께 작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 **언어 검수자:** 번역가가 매개본을 바탕으로 작업할 경우, 고유명사 표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영역본에서는 원문의 중세 그리스어식 표기를 라틴어식으로 전사해 표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표기상의 변이가 발생한다.¹⁵⁾ 번역가들은 중세 그리스어식 표기를 최종 번역에 사용해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매개본의 표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점검하고자 언어 검수자는 텍스트에 옮겨진 고유명사 표기가 중세 그리스어식인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 **교정·교열가:** 본 프로젝트에서는 탁월한 작문 역량을 갖춘 번역가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중세 그리스어 구사 능력이나 중세유럽 배경지식 여부 등 다른 방면에서의 전문성 또한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정·교열가를 별도로 투입, 번역가들이 생산한 텍스트의 문장구성과 문체를 조정해 가독성 및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기기로 하였다.
- **후원자:** 상술한 인원을 모두 고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지출이 불가피했다. 이에 김연수는 크라우드 펀딩을 개시하고, 후원자들의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복수의 매개본:** 취합번역에 쓰일 매개본들은 비인간 행위자로서 네트워크에 편입된다. 다만 현재 출간되어 매개본으로 활용 가능한 언어 번역본은 도스 영역본과 슈터 영역본뿐이므로, 이들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상의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은 김연수를 중심으로 결집,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동맹을 형성한다. 이때 김연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로로서 의무통과점의 위치를 점한다. ANT의 관점에서 행위자들은 각자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위해 기여를 제공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기여는 문제 제기자가 설정한 해결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일제히 정렬된다.

문제제기 단계에서 김연수는 중역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프로젝트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기획하였다. 그는 취합번

15) 원전의 제목인 ‘알렉시아스’가 영역본에서 라틴어화되며 ‘알렉시아드’로 변이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역 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번역가, 언어 검수자, 교정·교열가, 후원자, 복수의 매개본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규정했다. 이처럼 김연수는 핵심 행위자로서 중역의 한계 보완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적 위치에 있었으며, 이는 중역의 한계 보완 과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4.2 관심끌기: 그들을 어떻게 끌어들이 것인가?

문제제기 단계에서 해결할 문제 및 필요한 행위자의 정체성이 정의되었다면, 관심끌기 단계에서는 이들을 네트워크에 편입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실천이 이루어진다. 행위자에게 다른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경쟁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대신 이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유도하기 위한 이해관계의 조율 및 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이 이 단계의 특징이다.

본 사례의 경우, 문제제기 단계에서 중역의 잠재적 문제가 인식되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를 동원한 취합번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취합번역에 쓰일 매개본인 도스 영역본과 슈터 영역본은 비인간 행위자로서 단순히 네트워크로 편입되었으며, 인간 행위자 가운데 언어 검수자¹⁶⁾와 교정·교열가 역시 이해관계의 조율을 통해 비교적 원활하게 네트워크로 끌어들이 수 있었다. 반면, 프로젝트에서 핵심 작업을 담당할 번역가, 그리고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후원자의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더욱 전략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관심끌기 장치가 필요했다.

김연수는 먼저 여지현 번역가와 유동수 번역가에게 네트워크 편입을 제안한다. 김연수는 이들이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 원정에 관심 있는 지인 번역가”였다고 소개한 뒤, 평소 이들과 비잔티움사 및 십자군 원정사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며 『알렉시아스』 번역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왔다고 밝혔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5. 12. 5.). 따라서 이들 번역가가 편입을 위한 협상의 테이블로 유도된 배경에는 ‘사적 친분에 기반한 책임 의식’과 ‘번역 필

16) 언어 검수자로 위촉된 닉네임 ‘물의 백작’은 「동로마의 황제로 회귀하다」를 비롯한 여러 대체역사 소설을 집필한 웹소설 작가이다. 그는 언어 검수 역할과 더불어, 본 한국어 번역서에 축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요성에 대한 공감'이라는 관심끌기 장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번역 노동의 대가로 제시된 '금전적 보상'과 같은 프로젝트 차원의 제도적 지원 또한 이들의 참여를 결정짓는 실질적 기제이자, 나아가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는 장치로 기능했을 것이다. 이처럼 김연수가 제시한 다양한 관심끌기 장치를 통해 두 번역가들은 성공적으로 포섭될 수 있었다.

한편,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김연수는 외부의 네트워크로부터 새로운 행위자를 탐색하기도 했다. 장인식 번역가가 이러한 경로로 편입된 행위자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김연수의 제안 이전부터 취미 삼아 『알렉시아드』를 중역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장인식 번역가는 중세 유럽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혼자 번역 활동을 해오며, 완성된 결과물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미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였다.¹⁷⁾

김연수는 여러 관심끌기 장치를 제시함으로써 장인식 번역가가 속한 경쟁적 네트워크를 해체 및 재편할 수 있었다. 그는 금전적 보상 또한 프로젝트 참여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정식 출판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검수 및 윤문 과정' 역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말한다(장인식, 사적 통신문, 2026. 2. 12). 그는 특히 "(알렉시아드를) 최초로 한국어로 소개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고 밝히며, 정식 출판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텍스트의 교열·윤문, 고유명사 표기 검수, 번역 검수 등을 거칠 경우, 혼자 번역을 수행할 때보다 독자에게 더욱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번역을 선보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장인식, 사적 통신문, 2026. 2. 12).¹⁸⁾ 이러한 그의 이해관계는 김연수가 제시할 수 있었던 '금전적 보상'과 '검수 및 윤문 지원'이라는 관심끌기 장치와 맞물리며 새로운 네트워크로의 편입을 성사시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장인식 번역가는 김연수의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기존 네트워크의 해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

나아가 김연수는 자신 또한 번역가로서 네트워크에 편입시킨다. ANT의

17) 김연수는 장인식 번역가의 블로그를 발견하며 프로젝트를 위해 그와 접촉하게 되었다고 밝힌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5. 12. 5.).

18) "정식 출판 시 교열이나 교정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고 ... 보다 엄밀한 고증(고유명사 표기 및 번역 정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장인식, 사적 통신문, 2026. 2. 12)

관점에서 보면, 이는 그가 자신에게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기존 네트워크에서 이탈하고, ‘번역 과정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로 스스로를 재배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 정체성을 받아들임으로써 김연수는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번역가들과 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번역 과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들 번역가를 모두 동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프로젝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했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5. 12. 5.). 재정 마련을 위해 김연수가 선택한 방법은 크라우드 펀딩이었다. 2023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그리고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펀딩을 진행하며,¹⁹⁾ 김연수는 가능한 한 많은 후원자를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기 위한 특별한 관심끌기 장치를 준비하였다. 일정 금액 이상을 모금한 모든 후원자에게는 『알렉시아드』 번역서 초판본과 함께, 안나 콤피니 관련 서사를 다룬 히스토리퀸 출판사의 전자책 일부가 제공될 예정이었다. 또 펀딩 달성률에 따라 책갈피, 포스터, 엽서, 메모지, 포토카드 등의 ‘특전 보상’도 단계적으로 제시될 계획이었다.²⁰⁾ 이러한 전략은 김연수가 ‘(후원금 납부를 통한) 특전 보상 수령’이라는 후원자의 이해관계를 ‘(특전 보상 지급을 통한) 프로젝트 자금 확보’라는 자신의 이해관계로 치환함으로써 후원자들을 문제 해결에 동원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관심끌기 단계에서 김연수는 강력한 관심끌기 장치를 통해 행위자들을 끌어들이었다. 번역가들은 ‘중세 유럽사에 대한 관심’, ‘번역 필요성에 대한 공감’, ‘검수 및 윤문 지원’ 등을 기점으로 협상에 참여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의 편입을 성사시키고 동맹을 결속한 실질적 기제는 번역 노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는 관심끌기 장치였다. 또 김연수는 ‘특전 보상’이라는 관심끌기 장치를 마련, 후원자들을 끌어들이어 프로젝트 재정을 확보하기도 하

19) 1차 크라우드 펀딩 게시글: <https://bit.ly/4tkq76D>

2차 크라우드 펀딩 게시글: <https://bit.ly/3LXR6Eq>

20) ‘선물 없이 후원하기’ 옵션을 선택한 후원자에게는 별도의 특전 보상이 제공되지 않음이 명시되었다. 이 경우 해당 후원자들은 ‘번역서의 출간’ 자체에서 이해관계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였다. 이 사례에서 보듯 김연수는 중역의 한계 보완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를 네트워크로 편입시켰으며, 이를 가능케 한 것은 강력한 관심 끌기 장치였다. 위 관심 끌기 장치는 특히 네트워크 내에서 권력을 가진 핵심 행위자의 위치에서만 마련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김연수의 구조적 위치와 역할은 더욱 부각된다.

4.3 등록하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관심 끌기 단계에서 네트워크에 잠정적으로 포섭되었던 행위자들은, 등록하기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이 수행할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네트워크에 사실상 결속된다. 가정적 참여자에 머물렀던 행위자들은 이 단계를 거치며 할당받은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게 되며, 동맹 관계는 공고화된다.

본 프로젝트의 행위자들도 각자 구체화된 역할을 부여받으며 네트워크에 고정된다. 언어 검수자와 교정·교열가는 문제제기 단계에서 정의된 고유 명사 표기 검수와 교열·윤문 역할을 그대로 부여받았다. 반면 다른 행위자들의 역할은 보다 복잡한 조정 과정을 거치며 최종 확정되었는데, 예컨대 번역가들의 작업 분량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1개 장에서 8개 장까지 다르게 배분되기도 했다. 유동수 번역가와 여지현 번역가는 각각 1~2장과 9~12장을, 김연수는 13장을 맡았으며, 장인식 번역가는 3~8장과 14~15장을 담당하며 가장 많은 분량을 번역하게 되었다.²¹⁾

이 단계에서 일부는 기존 역할에 더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다. 장인식 번역가의 경우, 그의 비교적 높은 중세 그리스어 독해 실력을 바탕으로 역할이 확장되었다. 그는 원문-매개본을 교차검증하며 매개본 속 잠재적 오역을 검토하는 역할을 추가로 맡게 되었고, 이는 중역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핵심 절차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대조 과정에서 “(장인식 번역가가) 영역본의 오역을 어느 정도 짚어내 수정하기도 했다”고 김연수는 밝힌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5. 12. 5.).²²⁾

21) 그 밖에도 장인식 번역가는 대표로 역자 서문을 집필하였고, 유동수 번역가는 후술하듯 책갈피 삽화를, 그리고 여지현 번역가는 등장인물의 가계도를 그렸다.

22) 인터뷰 과정에서 장인식 번역가는 번역 중 맞닥뜨린 오역 및 과잉 해석의 사례 일부를 제시해주었으며, 이를 필자가 검토하였다. 다만 번역의 정확성을 따지는

유동수 번역가의 특기는 번역과 무관한 영역에서 활용되었다. 역사 만화가로도 활동해온 그는 후원자에게 제공될 특전 보상 중 하나인 책갈피의 삽화 디자인을 담당하였다. 그의 삽화로 제작된 책갈피는 앞서 살펴보았듯 후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관심끌기 장치로 사용되었다.

후원자들의 등록 과정은 각자가 펀딩을 완료한 시점에서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크라우드 펀딩에는 총 430명의 후원자가 참여했는데, 1차 펀딩에서는 목표액 100만 원의 1,161%인 11,616,000원이, 2차 펀딩에서는 목표액 50만 원의 332%인 1,660,500원이 모금되며 목표 금액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거두었다. 이처럼 등록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특전 보상이라는 관심끌기 장치가 효과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심끌기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등록하기도 쉽게 달성되는데(Callon, 1984, pp. 65-66), 본 사례에서는 특전 보상을 통해 관심끌기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며 실질적인 등록까지 성사되게 된 것이다.

한편, 비인간 행위자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우선 두 영역본 모두 오역 및 과잉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장인식, 사적 통신문, 2026. 2. 12.). 도스 영역본은 원문의 유려한 문체를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소위 ‘직역’에 가까운 번역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동어반복이나 중복 구절과 같은 질적 문제도 함께 내포한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6. 2. 11.; 장인식, 사적 통신문, 2026. 2. 12.). 반면 슈터 영역본은 원문에 포함된 성경 인용구에 대한 상세한 각주를 제공,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표현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유용했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5. 12. 5.). 다만 원문의 문체에 대한 충실성이 다소 느슨했으며, 무엇보다 도스 영역본과 달리 판권이 아직 유효하다는 점은 이 매개본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6. 2. 11.). 이러한 정체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도스 영역본에게는 중역의 기반이 되는 1차 매개본 역할이, 슈터 영역본에게는 취합번역을 위한 추가 자료인 2차 매개본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후 각 매개본은 다른 인간 행위자들과 함께 양질의 번역을 생산하는 데에 기여하며 등록하기 과정을 마쳤다.

등록하기 단계에서 김연수는 행위자들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역할을 부여하거나, 기존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며 중역의 한계 보완을 실현시켰다. 장인식 번역가는 원문-매개본 교차검증 역할을 추가로 부여받았고, 유동수 번역가는 책갈피 삽화 디자인을 통해 프로젝트 재원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두 매개본 역시 각자의 상호보완적인 정체성에 따라 역할을 부여받으며 중역의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듯 핵심 행위자인 김연수는 중역의 한계 보완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 행위자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조율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4.4 동원하기: 그들은 지시를 따랐는가?

지금까지의 단계를 통해 핵심 행위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행위자들을 끌어들이고, 역할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²³⁾을 이끌어냈다. 이제 동원하기 단계에서는 행위자들의 행동이 취합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되고, 대변인은 이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부에 제시, 이들의 행동을 대변한다. 이때 행위자들이 대변인의 대변과 같이 행동하였다면, 대변인은 대표성을 가지게 되며 해결책, 즉 네트워크는 잠정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여겨진다(김상배, 2011, pp. 13-14). 반대로 행위자가 ‘반역’(Callon, 1984)을 하여 대변인의 대표성에 균열이 생긴다면, 네트워크는 실패한 것이 된다.

김연수는 『알렉시아스』 번역서의 부재’를 문제로 제기했으며, ‘중역의 한계를 보완한 『알렉시아드』 중역 번역서 출간’을 그 해결책으로 상정했다. 해결책을 실현시키고자 그는 여러 행위자로부터 필요한 행동을 유도해냈다. 이후 김연수는 이들의 행동을 ‘중역의 한계를 보완한 『알렉시아드』 중역 번역서’라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표시키고, 이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부에 제시한다. 이로써 그는 행위자들의 행동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행위자들의 행동이 대변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외부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각 행위자가 중역의 한계 보완을 위해 (성실히) 행동한 결과물

23) 동원된 행위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행동, 입장, 이해관계 등을 내놓는다(Callon, 1984, 1986; Latour, 2016, pp. 147-169; Law & Callon, 1988).

인 이 네트워크가, ‘중역의 한계를 보완한 『알렉시아드』 번역서’라고 주장하는 대변인의 대변과 일치한다면, 다시 말해 출간된 번역서가 김연수의 대변과 같이 실제로 중역의 한계를 잘 보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김연수는 이들의 행동을 올바르게 대변한 셈이 된다. 이후 외부로부터 타당한 반박이 제기되지 않는 한 네트워크는 성공한 것으로 잠정 간주된다.

그렇다면 과연 행위자들은 김연수의 대변대로 행동해주었을까? 대변인 김연수는 이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 ANT에서 이 질문은 네트워크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만약 행위자 중 일부가 반역을 하여 김연수의 대변을 거짓으로 만든다면, 김연수는 더 이상 행위자들의 행동을 하나의 목소리로 대변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는 외부로부터의 반박을 허용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김연수의 네트워크에도 잠재적으로 반역을 저지를 수 있는 행위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도스 영역본과 번역가가 이에 해당한다. 도스 영역본은 오역 없는 『알렉시아스』 영어 번역을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오역 및 과잉번역을 포함한 번역을 제공함으로써, 부여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반역을 하게 되었다. 번역가는 작업 시 원문을 참고해 매개본의 잠재적 오역을 점검하고, 매개본의 라틴어식 고유명사 표기가 아닌 원문의 중세 그리스어식 표기를 음차해 사용하며, 출판에 적합한 가독성과 완성도를 갖춘 텍스트를 생산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 역시 ANT의 관점에서는 반역이 된다. 만약 이들의 반역이 ‘중역의 한계를 보완한 『알렉시아드』 번역서’라는 김연수의 대변을 거짓으로 만들게 된다면, 네트워크는 외부의 반박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핵심 행위자는 각 행위자의 반역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반역을 통제할 수 있는 행위자들을 전략적으로 네트워크에 투입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다. 가령 도스 영역본의 반역은, 취합번역 전략을 채택한 김연수가 『알렉시아스』 원문과 슈터 영역본을 네트워크에 함께 편입시키면서 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행위자는 도스 영역본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며 텍스트를 교차검증했고, 그 결과 도스 영역본의 오역이 최종 번역으로 전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번역가 차원의 반역 역시, 다양한 행위자들을 네트워크에 동원하는 방식으로 상쇄될 수 있었다. 본 네트워크에는 원문과 매개본 전체를 교차검증한 장인식 번역가, 고유명사 표기를 검토하는 언어 검수자, 문장구성과 문체를 조정하는 교정·교열가가 함께 편입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번역가의 텍스트를 함께 검토한 덕분에, 개별 번역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도 마저 보완될 수 있었다(김연수, 사적 통신문, 2026. 2. 11.). 나아가 다수의 번역가를 편입, 각 번역가가 자신의 분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개별 번역가의 반역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이렇듯 본 사례에서는 핵심 행위자가 다양한 행위자를 전략적으로 네트워크에 편입시켜, 개별 행위자의 반역이 네트워크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

성공한 네트워크는 안정화 단계에 이른 뒤 블랙박스화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이면의 복잡다단한 구조는 번역서라는 하나의 결과물로 결절화되며 숨겨지고, 결국 번역서 자체가 단일한 행위자처럼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후 번역서를 소비하는 독자들은 그 복잡한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은 채, 번역서를 그저 하나의 개체로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블랙박스화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만약 결절화된 결과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닫힌 블랙박스는 언제든 다시 열려 네트워크를 구성했던 행위자들의 실체가 의심에 놓이게 된다(Callon, 1986, p. 30). 가령 어느 영역본에서 오역이 지적된 사례 또한 단혀 있던 블랙박스가 다시 열리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해당 영역본 역시 출간 직후에는 네트워크가 잠정적으로 블랙박스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한 독자가 오역을 발견해 이를 문제 삼는 순간, 블랙박스는 다시 열려 그 복잡한 네트워크와 행위자들이 밖으로 소환된다. 이처럼 번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라면, 네트워크 속 여러 행위자 가운데 특히 반역의 주체로 의심되는 번역가가 다시 꼬집어지고, 그의 실체와 행동은 의심의 대상이 된다.

어떤 행위자의 반역이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대변인의 대표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해당 영역본의 네트워크를 외부에 소개하는 대변인은 응당 이를 ‘오역 없는 『알렉시아스』 번역서’로 소개 및 대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역이 확인되며 네트워크의 행위자가 대변대로

행동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순간, 대변인은 대표성을 잃게 된다.²⁴⁾ 그리고 해당 네트워크를 ‘오역이 있는 『알렉시아스』 번역서’라고 소개하는 그 독자가 행위자들을 대변하는 새로운 대변인으로서 대신 대표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Latour, 2016, pp. 168-169). “누가 누구를 대변하는가?”(Callon, 1984, p. 68)라는 질문이 네트워크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동원하기 단계는 대변인 김연수의 대표성을 확인하여 네트워크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과정이었다. 본 사례에선 『알렉시아스』 영역본과 번역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해 반역을 하게 되면, 김연수의 대표성은 부정되고 네트워크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반역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김연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전략적으로 네트워크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반역을 상쇄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김연수는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중역의 한계를 보완한 『알렉시아드』 중역 번역서 출간’이라는 해결책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었다.

5. 논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역의 한계 보완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두 가지 핵심 논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는 다양한 행위자와의 전략적 협업, 둘째는 핵심 행위자 차원의 기획과 주도다.

5.1 다양한 행위자와의 전략적 협업

본 사례에서 중역의 한계 보완은 특정 번역가 한 사람이 아닌, 네트워크에 동원된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협업 속에서 실현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중역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과정은 여러 행위자와의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예컨대 본 사례에서는 언어 검수자가 편입되며 번역가와 협업 관계가

24) “이렇듯 번역과 반역(traduttore-traditore)은 한 곳 차이다.”(Callon, 1984, p. 75)

형성되었다. 언어 검수자는 번역가가 생산한 텍스트를 점검하며 라틴어식 표기가 쓰인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중세 그리스어식 표기로 고치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듯 언어 검수자와의 협업은 번역가의 작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중역의 한계 보완에 실질적인 기여가 되었다.

다수의 번역가를 투입해 분량을 분담한 것 역시 안정적인 취합번역을 위한 중요한 협업 전략이었다. 취합번역으로 인한 개별 번역가의 작업 부담과 시간적 압박을 완화하고자 김연수는 총 네 명의 번역가를 편입, 작업을 분담토록 하였다. 덕분에 각 번역가는 자신이 맡은 부분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안정적으로 취합번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

교정·교열가와와의 협업도 중역의 한계 보완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취합번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작문 능력보다는 중세 그리스어 독해 능력을 중심으로 번역가를 모집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때 텍스트의 교열과 윤문을 담당할 교정·교열가를 따로 투입하기로 하면서, 번역가 모집 단계에선 작문 능력에 대한 요구를 최소화하고 취합번역에 필요한 중세 그리스어 독해 능력을 위주로 인력을 선발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정·교열가와와의 협업은 취합번역에 필요한 번역가의 원활한 모집에 기여했다.

취합번역 자체도 비인간 행위자와의 협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중역의 바탕이 된 도스 영역본 외에도 슈터 영역본을 추가로 네트워크에 동원, 취합번역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들 비인간 행위자 간 협업을 통해 서로의 오역 및 과잉번역을 점검하고, 매개본의 오역이 최종 번역에 전이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한편, 이처럼 번역가 이외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번역을 완성하는 과정을 협업번역의 한 종류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협업번역의 개념을 ‘원천 언어 구사자와의 공동 작업’(Ivaska & Paloposki, 2018)으로 한정하지 않고, ‘번역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주체들과의 협력’으로 확장해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다. 가령 후스(Huss, 2019)는 협업번역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ANT를 제안하며, 번역 과정에는 번역가와 원문 텍스트뿐 아니라 편집자, 사전, 학자, 출판사, 보조금, 독자, 비평가 등 여러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Huss, 2019, p. 451).

본 사례 역시, 번역 과정에 언어 검수자, 다수의 번역가, 교정·교열가, 슈

터 영역본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전략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위 논의와 맞닿아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들과의 협업은 중역의 한계 보완을 실현시키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핵심이었다. 이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통한 협업번역(Huss, 2019)이 중역의 한계 보완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2 핵심 행위자 차원의 기획과 주도

ANT에서 핵심 행위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행위자의 포섭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통제권을 가진다. 또한 핵심 행위자는 네트워크 내에서 자원의 배분을 통제하는 위치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Callon, 1986; Law & Callon, 1988).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통제권을 가진 핵심 행위자가 중역의 한계 보완을 기획 및 주도하며, 그 과정은 효과적,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핵심 행위자의 통제권은 효과적, 안정적인 중역의 한계 보완을 위한 핵심이었다. 김연수는 직접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며 다수의 번역가, 언어 검수자, 교정·교열가를 전략적으로 네트워크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취합번역을 수행하는 번역가들의 업무 부담을 분산하거나, 텍스트를 검토 및 보완하는 역할을 맡으며 중역의 한계 보완이 효과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김연수가 자원 배분에 대한 통제권을 바탕으로 번역가들에게 약속한 금전적 보상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역의 한계 보완 과정을 가능케 했다. 금전적 보상은 번역가들을 성공적으로 포섭시킨 관심끌기 장치이자, 취합번역이라는 추가 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상으로서 번역가들을 네트워크에 단단히 결속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이렇듯 중역의 한계 보완은 네트워크 구성과 자원 배분을 통제하는 핵심 행위자의 기획과 주도하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며 효과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편, 핵심 행위자가 아닌 번역가 개인이 중역의 한계 보완을 주도한 사례와 비교할 때 이러한 논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바스카와 팔로포스키(Ivaska & Paloposki, 2018)는 출판사의 명시적 요구 없이 번역가가 스스로 중역의 한계 보완을 결정하고 수행한 소설 *Veljesviha*의 번역 사례를 소개한

다. 번역가 Villa는 4개월에 걸쳐 자발적으로 취합번역 및 협업번역을 수행했지만, 지급받은 번역료 3,000핀란드 마르카가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니었다”고 털어놓았다(Ivaska & Paloposki, 2018, p. 41). 결국 핀란드 교육부의 보조금에 의존해 투입된 시간과 노동을 보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보조금 없이는 (취합번역이나 협업번역을 통해) 더 어려운 책을 번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중역의 한계 보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등의 금전적 지원이 보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Ivaska & Paloposki, 2018, p. 41). 이 사례는 번역가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추가 행위자나, 늘어난 노동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번역가 개인이 중역의 한계 보완을 추진할 경우,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번역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다양한 행위자, 그리고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제도적 지원은 중역의 한계 보완을 효과적,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이었다. 이는 네트워크 구성과 자원 배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핵심 행위자가 한계 보완 과정을 기획 및 주도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 효과적, 안정적인 중역의 한계 보완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중역 연구의 주요 논의 주제로 부상한 중역의 한계 보완에 주목, 프로젝트 매니저 김연수 및 장인식 번역가와의 반구조화 인터뷰를 토대로 재구성한 『알렉시아드』 중역 사례를 ANT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번역 실무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중역의 한계 보완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역의 한계 보완을 실현시키는 데에 기여한 두 가지 핵심 요점을 논의점으로 제시하였다.

칼롱의 단계론(Callon, 1984)에 따라 분석한 본 사례 속 중역의 한계 보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문제제기 단계에서 김연수는 중역의 잠재적 한계를 미리 인지하고, 취합번역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는 다수의 번역가, 언어 검수자, 교정·교열가, 후원자, 복수의 매개본 등 필요한

행위자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중역의 한계 보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관심끌기 단계에서는 번역가들을 편입시키기 위한 금전적 보상이 제시되었으며, 특전 보상을 통해 후원자들을 유인,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끌기 장치는 핵심 행위자인 김연수만이 마련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어 등록하기 단계에선, 중역의 한계 보완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행위자들의 역할이 전략적으로 조율 및 확장되었다. 장인식 번역가는 원문-매개본의 교차검증 역할을, 유동수 번역가는 후원자들을 위한 책갈피 삽화 디자인 역할을 추가로 부여받았고, 두 매개본에게도 각자의 정체성에 따른 상호보완적 역할이 부여되었다. 동원하기 단계에 이르러, 대변인 김연수의 대표성이 확인된다. 김연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네트워크로 편입시킴으로써 영역본 및 번역가의 반역을 상쇄, 네트워크 전체가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김연수는 동원된 행위자들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고, 네트워크는 성공적으로 블랙박스화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역의 한계 보완을 실현시키는 데 기여한 핵심 요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다양한 행위자와의 전략적 협업이다. 본 사례에선 언어 검수자가 고유명사 표기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번역가와 협업, 중역의 한계 보완 과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다수의 번역가와 협업을 통해 작업 분량을 분담함으로써 취합번역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교정·교열가와 협업은 번역가 모집 단계에서 작문 능력에 대한 요구를 최소화했고, 덕분에 취합번역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번역가를 원활히 모집할 수 있었다. 나아가 슈터 영역본과의 협업 또한 매개본의 오역 및 과잉번역을 보완하는 취합번역 전략을 위해 필요했다. 이렇듯 본 사례에선 여러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를 통한 협업번역(Huss, 2019)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중역의 한계 보완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법이 되었다.

둘째, 핵심 행위자 차원의 기획과 주도다. 본 사례에서는 네트워크 구성과 자원 배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핵심 행위자가 중역의 한계 보완을 기획 및 주도한 덕분에, 그 과정은 효과적,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김연수는 다수의 번역가, 언어 검수자, 교정·교열가를 전략적으로 네트워크에 편입시켰고, 이들은 번역가들의 업무 부담을 분산하거나 텍스트를 검토 및 보완하며 중역의 한계 보완이 효과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

다. 금전적 보상 또한 취합번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되어, 번역가들을 포섭하여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결속시키는 장치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은, 번역가 개인이 중역의 한계 보완을 주도한 Villa의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그는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제도적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취합번역과 협업번역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들 사례는 결국 중역의 한계 보완을 효과적,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성과 자원 배분을 통제하는 핵심 행위자가 해당 과정을 기획 및 주도해야 함을 보여준다.

단일 사례로 분석을 수행했기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 외에도,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다른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인터뷰 과정에서 필자는 논문의 초안을 응답자에게 공개하였으며, 따라서 본고의 연구 설계가 응답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거듭된 인터뷰 및 논문 검토 과정에서 두 응답자는 사실과 다르게 기술된 내용을 직접 지적하기도 하였고, 특히 자신들의 기여가 과도하게 강조된 대목에 대해서는 이를 축소하거나 수정하도록 보완 설명을 제시하는 등 본고의 기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였다. 둘째는 ANT의 이론적 취지와 관련 있다. 본고는 번역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ANT의 대원칙은, 그간 네트워크에서 쉽게 간과되어 온 비인간 행위자들의 역할을 전면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홍성욱, 2010).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번역에 사용된 텍스트 외에는 이렇다 할 비인간 행위자가 등장하지 않아, 번역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을 더욱 폭넓게 규명하지는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번역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인간 행위자들을 더 포괄적으로 조명할 수 있기를 바라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방법론적 제약으로 인해 그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중역의 실무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실무 차원에서의 중역 연구 공백을 보완하고,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둘째, 본 연구는 중역의 한계 보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번역 실무에서 어떻게 설계 및 관리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중역을 수행하는 실제 번역 현장에도 적용 가능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 셋째, 본 연구는 번역학 연구에서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던 ANT를 분석틀로 도입, 사례에 기반한 구체적인 분석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는 번역학 연구에서 ANT의 적용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관련 연구에서 해당 이론을 적용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Komnene, A. (1928). *The Alexiad* (E. A. S. Dawes, Trans.). Routledge. (Original work published n.d.)
- Komnene, A. (2009). *The Alexiad* (E. R. A. Sewter, Trans.). Penguin Classics. (Original work published n.d.)
- Komnene, A. (2024). 알렉시아드 (장인식, 여지현, 유동수, 김연수, 공역). 히스토리퀸. (Original work published n.d.)

<2차 자료>

- 곽은주, 김동미. (2022). 인간과 기계번역의 공존을 위한 담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20(3), 5-32.
- 김상배. (2011).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국가전략*, 17(3), 5-40.
- 김연희. (20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조직의 안정화: 혹은 서비스 이용자는 어떻게 주변화되는가? 최병두, 김연희, 이희영, 이민경. (공편), *번역과 동맹: 초국적 이주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사회공간적 전환* (pp. 381-418). 푸른길.
- 김환석. (2005).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에 대한 이해. *한국 과학기술학회 강연/강좌자료* (pp. 137-157).
- 김환석. (2006). 과학 사회학의 쟁점들. *문학과지성사*.
- 남윤지. (2019). 영화 자막 중역(重譯)의 변이 현상 — 『언터처블: 1%의 우정

- 』 사례 분석. *통번역학연구*, 23(3), 25-60.
- 성승은, 임현경, 한유진. (2022). 넷플릭스의 중역을 통한 다국어 번역 현황. *번역학연구*, 23(1), 45-80.
- 성승은. (2020).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에서 중역과 저본의 영향. *동서비교문학저널*, 53, 149-174.
- 안수경. (2021). 한국어동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나타난 직역과 중역: 아동문학 『마당을 나온 암탉』 수출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5), 99-120.
- 양희민. (2025). 『알렉시아스』에 나타난 안나 콤피니의 역사서술법과 작품의 이면. *서양중세사연구*, 55, 103-155.
- 이상빈. (2016). 번역기계, 팬번역가, 로컬라이저의 네트워크: 게임번역기 MORT를 통해 살펴본 게임번역 네트워크의 미래. *번역학연구*, 17(3), 117-137.
- 최수연. (2016a). 영상번역의 사회학적 연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DBpia*.
- 최수연. (2016b). 영상번역 과정에 나타나는 클라이언트의 역할. *T&I REVIEW*, 6, 7-29.
- 최은경. (2022). 한국문학 영어 번역의 번역사회학적 연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한 사례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최은경. (2025a). 파친코의 재번역과 번역 네트워크의 재구성: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18(1), 161-186.
- 최은경. (2025b). 한국문학 번역의 행위자-네트워크 비교 연구: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7(1), 161-185.
- 홍성욱. (2010).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홍성욱. (편), *인간·사물·동맹* (pp. 15-35). 이음.
- Alvstad, C. (2017). Arguing for indirect translations in twenty-first-century Scandinavia. *Translation Studies*, 10(2), 150-165.
<https://doi.org/10.1080/14781700.2017.1286254>
- Andraka, M., & Milković, I. (2024). Arnold Lobel in indirect translation: The case of frog and toad in Croatian. *Meta*, 69(1), 72-88.

- <https://doi.org/10.7202/1113941ar>
- Assis Rosa, A., Pięta, H., & Bueno Maia, R. (2017).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terminological issues regarding indirect translation: An overview. *Translation Studies*, 10(2), 113-132.
<https://doi.org/10.1080/14781700.2017.1285247>
- Buzelin, H. (2005). Unexpected allies: How Latour's network theory could complement Bourdieusian analyses in translation studies. *The Translator*, 11(2), 193-218. <https://doi.org/10.1080/13556509.2005.10799198>
- Buzelin, H. (2006). Independent publisher in the networks of translation. *TTR*, 19(1), 135-173. <https://doi.org/10.7202/016663ar>
- Callon, M. (1984).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en of St Brieuc bay. *The Sociological Review*, 32(1), 196-233. <https://doi.org/10.1111/j.1467-954X.1984.tb00113.x>
- Callon, M. (1986). The sociology of an actor-network: The case of the electric vehicle. In M. Callon, J. Law & A. Rip (Eds.), *Mapping the dyna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pp. 19-34). Palgrave Macmillan.
- Callon, M., Law, J., & Rip, A. (1986). Qualitative scientometrics. In M. Callon, J. Law & A. Rip (Eds.), *Mapping the dyna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pp. 103-123). Palgrave Macmillan.
-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SAGE Publications.
- Davier, L. (2022). Translational phenomena in the news: Indirect translation as the rule. *Target*, 34(2), 395-418. <https://doi.org/10.1075/target.20160.dav>
- Davier, L., Marin-Lacarta, M., Pöchhacker, F., Gambier, Y., Ivaska, L., & Pięta, H. (2023). Studying indirect translation: A conversation with and between L. Davier, M. Marin-Lacarta and F. Pöchhacker. *Perspectives*, 31(5), 822-838. <https://doi.org/10.1080/0907676X.2023.2221389>
- Gambier, Y. (1994). La retraduction, retour et détour [Retranslation, return and detour]. *Meta*, 39(3), 413-417. <https://doi.org/10.7202/002799ar>
- Hadley, J. (2017). Indirect translation and discursive identity: Proposing the

- concatenation effect hypothesis. *Translation Studies*, 10(2), 183-197.
<https://doi.org/10.1080/14781700.2016.1273794>
- Hadley, J. (2021). The concatenation effect hypothesis in complex indirect translations: Translating the Arabian Nights into Gaelic and Japanese. *Perspectives*, 29(5), 676-690.
<https://doi.org/10.1080/0907676X.2020.1797131>
- Hekkanen, R. (2014). Direct translation — Is it the only option? Indirect translation of Finnish prose literature into English. In B. J. Epstein (Ed.), *True north: Literary translation in the Nordic countries* (pp. 47-64).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Huss, J. T. (2019). Collaborative translation. In K. Washbourne & B. van Wyke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literary translation* (pp. 448-467). Routledge.
- Ivaska, L., & Paloposki, O. (2018). Attitudes towards indirect translation in Finland and translators' strategies: Compilative and collaborative translation. *Translation Studies*, 11(1), 33-46.
<https://doi.org/10.1080/14781700.2017.1399819>
- Jiao, W., Wang, W., Huang, J., Wang, X., Shi, S., & Tu, Z. (2023). *Is ChatGPT a good translator? Yes with GPT-4 as the engine* [Preprint]. arXiv. <https://doi.org/10.48550/arXiv.2301.08745>
- Jin, H., Zhang, Y., & He, X. (2022). Indirect translation of foreign films for cinematic release in China. *Target*, 34(3), 465-488.
<https://doi.org/10.1075/target.00010.jin>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Latour, B. (2016). 젊은 과학의 전선: 테크노사이언스와 행위자-연결망의 구축 (황희숙, 번역). 아카넷. (Original work published 1987)
- Law, J., & Callon, M. (1988). Engineering and sociology in a military aircraft project: A network analysis of technological change. *Social Problems*, 35(3), 284-297. <https://doi.org/10.2307/800623>

- Marín-Lacarta, M. (2018). Mediated and marginalised: Translations of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in Spain (1949-2010). *Meta*, 63(2), 306-321. <https://id.erudit.org/iderudit/1055141ar>
- Mileto, F. (2025) *The human factor in translation technologies: The impact of a participatory approach on job satisfaction, motivation and attitude in public administration* [Doctoral dissertation, Dublin City University]. Dublin City University Theses. <https://doras.dcu.ie/30867/>
- O'Hagan, M. (2022). Indirect translation in game localization as a method of global circulation of digital artefacts: A socio-economic perspective. *Target*, 34(3), 441-464. <https://doi.org/10.1075/target.00007.oha>
- Park, K.-E., Shin, K.-H., & Kim, K.-S. (2015). Research on limitations of indirect literary translation and aspects of cultural vocabulary translation. *Neohelicon*, 42(2), 603-621. <https://doi.org/10.1007/s11059-015-0298-5>
- Pięta, H. (2017).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terminological issues in researching indirect translation: A critical annotated bibliography. *Translation Studies*, 10(2), 198-216. <https://doi.org/10.1080/14781700.2017.1285248>
- Pięta, H. (2019). Indirect translation: Main trends in practice and research. *Slovo.ru: Baltic accent*, 10(1), 21-36. <https://journals.kantiana.ru/eng/slovo/4171/12467/>
- Pięta, H., Ivaska, L., & Gambier, Y. (2023). Structured literature review of published research on indirect translation (2017-2022). *Perspectives*, 31(5), 839-857. <https://doi.org/10.1080/0907676X.2023.2221379>
- Shi, Y. (2025). Effective pivot language strategies for low-resource translation via prompting large language models. *Proceedings of the 202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Machine Vis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RMVAI)*, 1-7. <https://doi.org/10.1109/PRMVAI65741.2025.11108529>
- Toury, G.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 and beyond*.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Valdeón, R. A. (2022). On the role of indirect translation in the history of news production. *Target*, 34(3), 419-440. <https://doi.org/10.1075/target.00011.val>
- Wongseree, T. (2021). A collaborative translation effort producing subtitles for a HAS Center video. *Journal of Studies in the English Language*, 16(1), 53-85. <https://so04.tci-thaijo.org/index.php/jsel/article/view/244358>
- Zhang, X., & Song, H. (2023). The Mukokuseki strategy and the application of pivot translation in the localization of Japanese games. *Games and Culture*, 20(6), 671-688. <https://doi.org/10.1177/15554120231216545>

Addressing the inherent issues in the indirect translation process of the *Alexiad*: An actor-network analysis

Hyeon-woong Kim

Department of English Translation,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Abstract

Indirect translation remains a practical necessity, yet little research has examined how its inherent challenges are addressed. This case study investigates how such challenges were managed in the indirect translation of Anna Komnene's the *Alexiad* from Medieval Greek into Korean via English. Drawing on interviews with Yen-Sue Kim, the project manager, and In-Sik Jang, one of the translators, the study employs Actor-Network Theory to analyze the translation process through Callon's four moments of translation: problematization, interessement, enrollment, and mobilization. The findings show that Kim, the network's focal actor, anticipated the difficulties of indirect translation and adopted a compilative translation strategy. In identifying and recruiting key actors, including translators, a language reviewer, a copyeditor, financial sponsors, and mediating texts, she offered financial compensation, which proved crucial in securing the translators' participation. She further expanded the actors' roles strategically, an important step in addressing potential problems. Ultimately, the mobilization of multiple actors played a central role in controlling the "treason" of mediating texts and translators. The discussion highlights two factors that contributed to effective and sustainable ways of addressing problems: (1) a mode of collaborative translation that mobilized diverse actors to complement translators' work and (2) a process led by a focal actor that exercised control over network formation and resource distribution.

Keywords: Indirect translation; issues in indirect translation; actor-network theory (ANT); Alexias (The Alexiad); compilative translation; process-oriented research

키워드: 중역, 중역의 한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알렉시아스(알렉시아드), 취합번역, 과정 중심 연구

김현웅(<https://orcid.org/0009-0002-7293-8092>)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석·박사통합과정(5학기)

khwoong24@gmail.com

논문 투고일: 2026년 2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2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3월 16일